

상완이두 장두 건의 자연적 파열후 발생한 관절내 포착증후군

-3례 보고-

The Entrapment syndrome after Spontaneous Rupture of the Biceps Tendon

- 3 Cases Report -

김 승 기

가톨릭대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상완이두 장두 건의 병변은 회전근개 병리와 대부분 연관되며 만성 통증 환자에서 자연적으로 상완이두 장두 건이 파열된 이후에는 오히려 동통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자연적으로 상완이두 장두 건이 파열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통증으로 관절경 검사를 시행한 환자중 관절내에서 남은 상완이두 건이 관절내에서 포착되어 증상을 유발한 3례에 대해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998년 1월에서 2000년 2월까지 본원에서 상완이두 장두 건의 자연적 파열로 추시중 6개월이상 계속되는 통증으로 관절경 검사 및 수술을 시행한 3례를 대상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연령은 40대가 2명, 50대가 1명이었으며 모두 남자였다. 술전 이학적 검사상 전례에서 전형적인 Popeye근육변형을 보이면서 O'Brien 검사 및 Compression-Rotation 검사가 양성으로 나타났다. MRI 검사상 축상면에서 상완이두 구 내에 상완이두 장두가 관찰되지 않았고 관상면에서 SLAP병변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보였다.

결과

관절경 소견상 전례에서 상완 골두의 연골연화증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2례는 잔존한 상완이두 장두건의 제3형 SLAP 병변 소견을, 1례는 잔존한 stump가 관절내에 포착되어 증상을 유발하고 있어서 모두 관절경하에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결론

드문 경우이나 자연적으로 상완이두 장두 건이 파열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통증을 특히 기계적인 증상을 호소할 시 관절경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